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과 율법”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李 亨 基

(교수 · 역사신학)

I. 서론

성경은 그 내용상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무엇인가 인간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은 과연 성경의 요구와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율법의 행위없이 (그냥 값없이) 신앙으로만 수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구원)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들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문제요, 나아가서 “복음과 율법”의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신학적인 주제의 원조요 대가인 루터와 칼빈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율법과 복음”의 주제에 관하여 루터는 어거스틴의 「성령과 문자」(A.D.412)에 나타난 사상을 더 성경적으로 전개하였고, “복음과 율법”에 관하여는 칼빈이 루터의 “율법과 복음”의 주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두 주제는 성경해석의 열쇠로서 성경관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루터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

- 1) 복음의 재 발견
- 2) 율법과 복음
- 3) 경전 안에 경전

2. 칼빈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

- 1) 선포된 말씀
- 2) 기록된 말씀
- 3) 예수·그리스도
- 4) 율법과 복음
- 5) 복음과 율법

결론

I. 루터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

1. 복음의 재발견

젊은 루터는 그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현장을 목격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에 직면하여 급기야 죽음의 충격을 안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갔다. 루터 자신은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서약한 것은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였다.”(Tischreden 4. 303)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의 수도원의 삶이 그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었는가? 수도원의 삶에 대한 루터 자신의 글들에 의하면 그는 그곳에서 결코 샘솟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없었다. 루터는 “나는 수도원에서 영혼의 구원을 상실하였고, 건강마저 망쳤다”(W. A. 33. 561)고 회고하였고, “내가 금식하므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나는 20년 거기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W. A. 20. 2. 453)라고 고백하였다. 루터는 “순결(chastity), 청빈(poverty), 순종(obedience)”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입원서약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수도승으로서 수도원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義) 앞에서 늘 그의 양심은 평화와 위로를 느낄 수가 없었다. 루터는 수도원의 생활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경험했다고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엄하고 무서운 심판자로만 알았다. 나는 이 심판자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없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노의 심판자로 사형집행인이요 악마이다. (W. A. 38. 148)

그래서 그의 고민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오였고 이처럼 자신에게 심판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그의 시험은 돈과 여자과 명예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과연 믿어야 하는가였다.

루터는 로마카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어 미사를 집례하면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다. 그는 신부로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성당의 “거룩한 계단”(scala sancta)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낱알이 참회·고백했어도 마음의 후련함이 없었다. 그 당시 가장 수준높은 신학교육을 받았고 이미 사제의 직무까지 수행하는 루터의 마음 속에 왜 이처럼 답답하고 무겁기만한 먹구름만이 가득차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 중세교회의 율법주의에 있었다. 복음의 경험에서 오는 이신칭의(以信稱義)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공로주의가 로마카톨릭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교황을 피라밋의 꼭지점으로 하는 계층질서적 성직체제가 7성례성을 통하여 매개하는 은혜, 평신도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기타 모든 “성자들”의 잉여공로, 죄에 대한 형벌을 돈으로 환산한 면죄부, 수도원적인 삶의 이상, 서품을 통해서 평신도와 비교도 안되는 높은 신분을 지닌 성직체제 등 모두가 율법주의적 공로주의에 입각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었던 후기중세기 스콜라주의신학과 신비주의의 구원론이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지녔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야말로 은혜없는 자연인의 자력구원을 주장했고, 로마카톨릭의 공식적인 정통구원론 역시 어거스틴을 훨씬 능가하는 공로주의를 지향했다. 아마도 이러한 16세기의 유럽의 분위기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종파들의 율법주의적 분위기와 비교될 수 있고 바울이 회심 이전에 경험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대비될 수 있다 하겠다. 예수님과 바울이 율법주의를 사정없이 때려부신 것과 같이 바야흐로 루터는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복음을 경험하였다.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복음을 발견했고 어떻게 이신칭의를 경험하였나?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주제를 논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율법적인 중세교회의 분위기에서 복음을 경험하였다. 신부로서 로마에 가서 거룩한 계단을 오르고 돌아온 루터는 박사학위를 끝내고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였다. 특히 루터는 수도원의 다락방에서 시편을 강의(1513-1515)하던 중 복음의 맛을 보았고(“탐의 경험”), 결정적으로는 로마서강해(1515-1516) 중, 로마서1:17에 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주석(1519)에서 복음을 재발견하였다. 루터는 롬1:17에 나오는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와 이것을 수용하는 “신앙”을 연결시켜 그 유명한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alone)를 경험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자신의 의를 계시하셨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신앙으로 수용하므로 칭의를 얻는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미 논한 중세적인 율법의 의혹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복음(예수 그리스도)을 통해서 인간은 신앙으로 칭의를 얻는다.

루터는 이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경험에 관하여 1545년 그의 라틴어 작품들을 위한 서설에서 이렇게 확신하였다.

이 성경의 핵심이 나의 마음에 와 닿았을때 나는 거듭 태어남을 경험했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성경 전체가 온통 다르게 보였다...

이처럼 루터에 있어서 이신칭의의 경험은 성경이해의 열쇠가 되었고 성경에 근거한 모든 신학적 주제들의 초석이요 시금석이 되었다. 이는 복음이 성경의 중심이요 모든 신학적 주제들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루터는 이 복음의 경험인 이신칭의야말로 “모든 종류의 교리들을 판단하고 모든 교회의 가르침들을 보존하고 지배한다”고 역설하였다. 루터의 이신칭의는 단순히 여러 교리들 가운데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구원의 경험에 근거한 강한 주장으로서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까지 루터는 주장한다. 우리가 다음에 논할 율법과 복음은 단순한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논한 구원론적 경험, 무엇보다 율법주의에 항거하여 얻은 복음의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경험은 율법의 경험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2. 율법과 복음

루터의 말씀론의 초점은 복음이다. 루터는 4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였고 특히 이 복음은 선포되었던 것으로 다시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의 복음에 의하여 4복음서를 이해한다. 루터는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사도들이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4복음기자가 4개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모든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하나의 복음이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특히 그의 죽음(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고 획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이란 본래 신약성경의 책들 안에 감혀 있거나 문자 안에 속박되었던 것이 아니라 구두(口頭)로 외쳐졌던 선포였고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온세상에 울려 퍼졌던 음성이었다. 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이다. (Commentary on Peter and Jude, pp. 9f.)

루터가 4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에 대한 증언으로 이해하는 바 우리는 다음 인용에서 루터는 무엇보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입각해서 그것을 이해하였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수(the word of God)로서 이해되기도 하고 복수(the words of God)로서 이해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여러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바울이 쓴 로마서1장에 의하면, 말씀이란 성육신하셨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칭의(稱義)하고, 영혼을 자유케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영혼은 설교의 메시지를 수용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신앙만이 말씀으로 하여금 구원의 효험을 일으키게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10: 9),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義)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10: 4),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 17) (A Treatise on Christian Liberty)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位格)과 사업(事業)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 분이 “무엇”을 행하셨다가 복음이다. 이 복음은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선포되어야 한다. 루터는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복음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즉,

바울의 고전10장에 의하면 구약의 모든 족장들과 선지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복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차이점이라고는

구약의 사람들은 장차 올 약속된 씨를 믿었고, 우리는 이미 왔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씨를 믿는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약속이 있고, 히브리서13장에 의한즉,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의 신앙, 하나의 성령,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주님이 존재할 뿐이다.(The Magnificat)

이상과 같이 루터는 구원론적 통찰력에 의하여 성경의 중심주제를 “복음”으로 보았는데, 이 복음이해가 이미 율법과의 관계를 포함한 것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내용에 접할 때에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읽었고 이 양자의 역동성을 경험하였다. 이 율법과 복음은 루터의 모든 신학적 주제들의 출발이요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칭의로부터 나온 주제로서 이 주제는 루터신학의 중심(G. Ebeling)이다. 이 “율법과 복음”의 참된 이해는 참 신학자가 되게 하는 관건이요 신학의 시금석이다(Ebeling). 루터는 이렇게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와 신학 전체의 이해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에 달렸다 (W. A. 7. 502. 34f.)

누구든지 복음을 율법과 옳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자신이 신학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W. A. 40. I ; 207. 17f.)

그러면 루터가 주장하는 율법과 복음은 각각 무엇이며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루터 자신의 글을 검토해 보자.

성경은 명령들(율법)과 약속들(복음)로 되어 있다. 명령들은 진실로 선한 것들을 가르치고 명령한다. 그러나 이처럼 가르쳐지고 명령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실행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령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 이 명령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의도를 갖는다. 즉, 인간은 이 명령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절망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경의 두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들이다. 이 약속들은 명령들 다 음에 나온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즉, “네가 율법의 요구를 실행하기를 원한다면 와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은혜, 의, 평화, 자유 및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만일 네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너의 율법의 행위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결국 너는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할 수 없다. 너는 오직 신앙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신앙에 달려 있게 하셨다. 그래서 신앙에 달려 있게 하셨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신앙을 갖지 않은 자는 아무 것도 갖지 않은 자이다. ...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요구하는 바를 그냥 주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한다. 즉,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명령 하시고 하나님만이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새 언약이다. (A Treatise on Christian Liberty).

이어서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보다 더 간결하게 구별한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이것이다. 율법은 마땅히 행해져야 될 것과 행해져서는 안될 것을 설교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것과 행해져서는 안될 것을 알려준다. 이 점에서 율법은 죄를 인식케 한다. 반면에 복음은 사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성취된 율법의 성취를 설교한다. 율법의 소리는 ‘네가 빚진 것을 갚으라.’이고 복음의 소리는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이다 (W. A. 57. 59. 18)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떠한고 율법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루터는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다. 즉,

율법은 인간의 양심을 고발하고, 검혀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한 다음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복음)를 갈급하게 하고 갈망하게 한다. 그런데 다음의 사실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 “율법이 당신의 양심에 역사한 다음에 당신은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비참함과 상실된 상태를 인식함으로써 절망에 떨어져서는 안되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는 누구나 칭의를 얻습니다”(롬10:4) (갈라디아서 주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사 “강도, 살인자, 간음한 자, 참람한 자”가 되사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발을 당하셨고, 심판을 받으셨고, 사형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죄와 죽음을 정복하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율법을 경험한 우리가 복음설교를 들을 때에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한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한다.

새로운 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새집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면 옛 주인인 모세는 이사를 가야한다.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은 곳에는 율법, 죄, 진노, 죽음은 이사하고 만다. 바야흐로 새집에는 은혜, 의, 기쁨, 생명이 있을 뿐이요, 화복케 되신 아버지께 대한 아들다운 신뢰가 있을 뿐이다. (갈라디아서 주석).

3. 경전 안에 경전

루터는 1519년 라이프찌히 논쟁에 임하여 엑크와의 대결에서 비로소 교황과 종교회의들은 “성경 밑에”있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성경관을 논하기 전에 이신칭의의 경험과 통찰에 입각한 율법과 복음을 먼저 논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1519년에 와서야 “오직 성경으로만”(sola &Scriptura)의 원리를 내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박았다. 루터 자신의 말에 유의하자.

기독교의 신앙이 인간들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말에 달렸다면 성경(the Holy & Scriptures)이 왜 필요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On The Councils and The Churches)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과 인간의 가르침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촉구할 뿐이다. 기독교인은 적어도 이 양자를 뒤바꿔 놓아서는 안된다. 금과 지푸라기, 온과 나무 그루터기, 보석과 돌을 누가 바꾸겠는가? (Answer to the Superchristian, Superspiritual, and Super learned Book of Goat Emser.)

나는 모든 책이 없어지고 성경만 읽혀졌으면 한다. 온갖 다른 책들이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성경을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이다. (Conversations with Luther)

루터는 성경의 영감을 믿으며 성경의 권위를 교회와 이성의 권위보다 높이고 있으나 그는 적어도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의 복음의 경험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사도성의 표준)가 회박한 야고보서를 지프라기서라 하였고, 이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의 행위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았다. 이미 우리가 논한 율법과 복음의 구별에 있어서도 암암리에 율법계통의 말씀내용 보다는 복음에 해당하는 말씀내용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비중이 결코 같지는 않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진주알들이라면 복음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더욱 빛나는 진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루터는 복음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바울의 서한들과 요한복음과 요한1서와 같은 요한의 글, 그리고 베드로전서 등을 성경의 주된 책들(Hauptbucher)이라하여 성경의 다른 부분과 구별하였고 이것을 가르켜 “경전 안에 경전”(Kanon im Kanon)이라 불렀다. 이것이 루터의 성경 해석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루터의 성경관은 이상에서 살핀대로 결코 문자주의적 성경주의(Bibli-

cism)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설교를 강조하는 루터의 성경관은 이미 선포된 복음말씀, 다시 선포되어야 할 복음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설교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이전의 형태요, 설교된 말씀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인 한 그의 성경관은 결코 기계적 영감론에 의존할 수 없다. 루터는 그 어떤 종교개혁자들 보다는 설교를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를 “입의 집”(Mundhaus)이라고까지 하였다. 설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루터는 이렇게 주장한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책들이 쓰여지고 읽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들은 반드시 말해져야 하고 경청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사도들도 남보 쓴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새 언약의 교역(ministry)은 죽은 돌비에 적혀져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살아 있는 음성에 있다. (W. A. 5. 537. 10)

따라서 루터의 말씀론은 3중적이고 2중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각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셋은 하나이다. 그리고 이 각각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2중성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까지 2중성을 갖는 이유는 예컨데, 그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인 동시에 선물이기 때문이요,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고발과 저주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속을 뜻한다.

II. 칼빈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

칼빈의 경우도 루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3중적이고 2중적이다. 즉, 칼빈은 설교말씀, 기록된 말씀 및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들 각각이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역동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루터와 달리 칼빈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성경에서 찾아냈다.

1. 설교말씀

칼빈에게 있어서 신·구약성경의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Deus loquens=speaking God)이다.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에 의하여 기록되기 전에 이미 동일한 성령께서는 족장들, 예언자들, 예수님 및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칼빈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야만 우리는 예언자들의 선포를 파악할 수 있다.”(Inst. I. vii. 4)고 한다.

칼빈은 교회가 “예언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설교”(I. vii. 2)에 기초했다고 함으로써 루터처럼 교회를 무엇보다 선포된 말씀의 피조물로 본다. 설교는 성령의 역사로 듣는 이의 마음에 와 닿는다.

설교를 아무리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속에 계시는 스승, 곧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길을 열어 주셔야 설교 말씀이 들린다... 확실히 성령이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야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능하다.”(II. ii. 20)

칼빈은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롬10:17)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설교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1:21)를 인용하므로 복음설교와 구원의 신앙을 연결시킨다. 칼빈은 “복음설교를 듣고 사죄를 얻는다. 죄인이 사탄의 굴레와 죄의 멍에에서 해방되고, 모든 악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로 옮겨진다”(III. iii. 18)라고 주장했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제2스위스신앙고백은 이렇게 고백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식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설교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과 이것이 믿는 자에 의해서 수용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신약성경의 정경화과정에 있어서 말씀이 약 25~30년 어간 동안 기록이 아닌 구전(연속적 생명력을 가지고 내려오는 예배하는 공동체의 말씀 설교와 가르침과 증거가 그 주된 부분이었지만)으로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들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된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역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한다.

2. 기록된 말씀

칼빈에 있어서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설교말씀을 듣고 구원의 신앙(saving faith)을 경험한 사람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입을 통해서 성령에 의하여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I. vii. 4)고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는데(I. vii. 4)이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성령을 통해서 말해졌던 것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므로 그 권위가 인간적인 것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성경의 비평학(이성)자체나 교회의 전통(교회의 권위)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근거시킬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려면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inium & piritus Sancti internum)를 받아야 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이성의 증거보다 훨씬 탁월하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와 닿으려면 인간의 마음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도장찍혀져야 한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우리의 마음 속 깊숙이 파고들어와야 본래 예언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I. vii. 4)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은 자라야 성경에 의존한다 (I. vii. 5)

칼빈은 성령께서 성자와 성부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긴밀히 연결시킨다. 칼빈은 성경이 성령과 얼마나 긴밀하고 역동적인 관계에 있나를 주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성경은 살아있을 것이 된다. 바울이 성경의 신적 영감을 주장할 때 그가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이다. (CR 54, 285 : 재인용.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p. 36)

그런데 기록된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칼빈은 이 기록된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주의적 무오성의 방향으로 강조했던 17세기 개신 교정통주의와 20세기 초 미국의 근본주의의 성경관과는 다소 입장을 달리한다. 우리는 칼빈이 루터보다는 기록된 말씀에 역점을 두기는 했어도 단순한 성경주의(Biblicism)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에 취급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및 복음과 율법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의 위격(位格)과 사업(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이 곧 하나님의 말

씀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神性)이시요 참 사람의 아들(人性)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the Mediator)요 화해자(the Reconciler)이시다. 이것이 그의 위격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위격의 소유자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승귀(昇貴)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사업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없이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이 공허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성경의 주제이시다. 칼빈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렇게 주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십시오으로써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죽은 문자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의 우매함을 고발하셨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이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Calvin, *Commentaries*, L. C. C., 1950, p. 104)

그런데 위 귀절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즉, 우리는 성경 이외에서는 그 어느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옳게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성경을 읽는 주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려는 데 있다 (Ibid., p. 104)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저들에게 분명히 계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그리스도 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이요, 구약의 참뜻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성경 전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다. 즉, 성경이 성경의 유일한 목표(scopus)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지워지지 않는다면 모든 성경이 몹시 곡해되고 왜곡될 것이다. (Ibid., p. 112)

구약에서 하나님은 희생제와 화목제 등에 의하여 선민의 아버지로 드러나 있는 바,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II. ix. 1) 그러나 구약은 신약에서 더 분명히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였다(벧전1:10) 요한5:46은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말한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약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다. 사실 구약의 많은 왕들과 예언자들이 이것을 갈망했으나 아직 도달할 수 없었다.(눅10:23-24, 마13:16-17). 요한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요8:56)고 말한다.

칼빈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선 무엇을 찾아야 하고 성경의 내용을 어떤 목표에 맞추어야 하나?”라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목표요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목표를 열망해서는 안된다. 조금이라도 이 목표에서 빗나가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이다. (OS3, 6, 24. Niesel, op.cit., p. 26)

칼빈은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목표는 신앙이어야 하고 주님을 두려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려들어 가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유이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OS 3, 6, 24, Niesel, op. cit., p. 27)

끝으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성경이 우리의 마음 속에 와 닿을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회심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다. (Inst. I. ix. 3)

이상에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업임을 증명했다. 설교의 주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론으로 축소될 수는 없다. 그것은 성경이해의 열쇠요 모든 성경적 교리들(삼위일체, 인간론, 구원론, 성화론, 교회론, 성례론, 종말론 등)의 초석이요, 특히 하나님과 인간 인식의 인식근거이다. 하지만, 성경의 명제적 진리들이 격하되어서는 안되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3중적이다. 설교말씀, 성경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것 하나 없이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는 3위1체에 유비된다. 성부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 없이 성령이 계시 수 없듯이 그리고 이 3위가 일체이듯이 설교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위1체이다. 루터 역시 말씀의 3중성을 주장했으나 칼빈 만큼 각각의 말씀에 있어서 성령(聖靈)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된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다.

4.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義)가 제시되었다. 인간은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조명될 때 자기의 불의(不義)를 깊이 뉘우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드러내므로 인간의 불의를 알리고, 경고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사랑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결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는다. (II. vii. 6)

율법은 거울과 같다. 우리는 이 거울을 들여다 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명상하고 이러한 동안에 여기에서 죄가 드러나고 급기야 저주를 느낀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의를 수행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범죄가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막중해진다.(II. vii. 7).

거룩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율법을 통하여 잘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의 참된 자아이해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 내지는 그의 율법말씀과의 만남에서 일어난다. 하나님 지식을 통한 인간의 자기이해, 그리고 인간의 자기이해를 통한 하나님지식은 서로 긴밀히 관계되어 있다. (I. i. 1). 하나님 존전에서의 인간의 자기이해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칼빈 역시 루터에게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배웠으나 칼빈의 특징은 거룩하시고 위엄에 찬 하나님(the Holiness and Majesty of God)의 율법말씀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인용은 루터의 글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내용이다.

만약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하나님을 명상하는 데서 다시 내려와 자기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분명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자신의 불의, 불결, 어리석음 및 불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지 않는 한, 항상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방정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한다.… 주님께서만이 이와같은 판결의 유일한 척도요 표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땅만을 내려다 보거나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력이 강하고 예리하다고 생각하나, 태양을 바라볼 때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볼 때 강했던 시력이 즉시 저 밝은 빛 앞에서 혼미해지고 만다는 것을 안다. (I. i. 2)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죽을 것이다.” (삿13: 22, 6: 22-23, 겔2: 1, 1: 28)든지, 욥의 경우 하나님의 지혜, 능력, 죄 없으심 앞에 압도되어 자기자신의 우매함, 무능 그리고 부패함을 인식한 것(욥38: 1 이하)이라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기를 “흠과 먼지”

(창18:27)라고 한 것이라든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 사실(왕상19:13)이라든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시 자기의 부정함을 깊이 느낀 사실(사6장) 등은 모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노출된 인간의 모습이다. 칼빈은 “평상시에는 확고부동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될 때, 마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 지반이 뒤흔들리어 멍해지고 아마도 압도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본다.” (I. i. 3)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율법을 경험한 사람을 정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주이신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구속자이시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신비가 분명히 계시된 것”(II. ix. 2)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의 선포”(Ibid)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 오랫동안 침묵에 쌓였던 신비의 계시이다.”(II. ix. 4)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는 구약성경이 이미 증거하였다 (롬3:21)

예수님 자신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말씀도 복음이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강림사건과 더불어 그 전모가 들어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전(全)위격과 사업(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외를 극복하고 화해를 이룩했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논한 율법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극복하고 화해를 성취하였다.

율법을 통해서 노출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가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누가(位格), 어떻게(사업)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仲保)할 수 있으며 화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인간이어야 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다리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사정을 잘 알려면 반드시 인간이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Immanuel : 사7:14, 마1:23)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다. 환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의 중보자시요, 화목주시요, 구속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 그것도 전인(全人)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율법말씀을 통해서 노출된 “인간”의 운명을 걸머지셔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큰 범죄자(인간)로서 고발과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 그 분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모든 것을 걸머지신 것이다. 이 분이 바로 죄인의 역할(the role of a guilty man and evildoer) (II. xvi. 5)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분이 우리의 복음이시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았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박탈당했으며, 사탄의 노예, 죄의 멍에를 맨 포로, 결국 무시무시한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으며, 지금 이 파멸에 개입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변호자로 개입하셔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걸머지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든 죄악을 그의 보혈로 도말하셨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회생과 만족을 돌렸으며, 중계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시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련된 화평의 기초인 것이다. (II. xvi. 2)

그러면 왜 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나? 칼빈은 이렇게 대답한다.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 그의 과업이었기 때문이다. 생명 그 자체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것을 해낼 수 있겠는가? 죄를 정복하는 것이 그의 과업이었기 때문이다. 의(義) 그 자체가 아니고는 누가 죄를 정복할 수 있겠는가? 공중의 권세들을 쳐부수는 것이 그의 과업이었기 때문이다. 공중의 권세들보다 더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고는 누가 이것을 해낼 수 있겠는가? 생명과 의, 주권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을 때에 그의 독생하신 아들의 위격 안에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II. xii. 3)

예수 그리스도(복음)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인간의 부정성(the Negative)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겐 생명이신 자신을 주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교환”(frohhicher Wechsel)이 일어났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사 우리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분여하시고, 본성상 그의 것을 은혜로 맡기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II. xv. 2)

그런데 복음의 사업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강림 이후 성령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통치하시고 급기야 영광의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복음의 약속을 이미 믿는 그의 몸된 교회를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일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칼빈에게 있어서 이상의 복음이 경험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 성령은 말씀의 설교, 세례와 성만찬, 기타 교회의 은총의 수단들을 통하여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신비적 연합을 일으키고, 이신칭의와 성화를 일으키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성령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화해의 복음사건을 교회의 은총의 수단들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이 화해를 실현하신다. 이 화해의 실현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일반 사회와 역사의 차원으로 나간다.

5. 복음과 율법

이미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서 율법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에 관하여는 그 관계양상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주로 루터적인 것으로서 이

경우의 율법의 역할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이요, 고발적 역할이요, 이 율법의 경험은 기독교인만이 하기 때문에 영적(spiritual)이요, 신학적이다.

그러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양상은 어떠한가? 율법을 통하여 정죄와 형벌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하여 성령역사로 이신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바야흐로 복음과 율법의 역동성을 경험한다. 즉, 이신칭의 얻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칼빈의 십계명해석에서 우리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밝히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십계명의 머릿말에 나오는 출애굽이 복음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에서 출애굽사건은 복음사건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 혹은 하나님사랑(예배)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중적 사랑(double Love)을 요구하시기 전에 저들을 애굽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노예된 인류를 해방시키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의 경험에서 논한 인간의 속박과 노예상태였고 복음의 경험에서 논한 인간의 해방이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총화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출애굽하여 광야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가나안땅을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 사도들은 모든 훈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 등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포함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목표(scopus)요 주제로서 인간에게 선물(Gabe=donum)로 주어진 복음이지요, 인간에게 요구된 모범(exemplum)이요, 과제(Aufgabe)로서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신 동시에 율법이시다. 그의 아가페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울은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복음과 율법을 통찰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복음)을 먼저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여 구원얻는 일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가 죽은지 40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은혜의 언약에 대한 신앙이 있는 후였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한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과 맺어진 은혜의 언약을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려 함을 알리려 하였다. 모세가 보내어진 것은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II. vii. 1)

칼빈은 복음과 율법의 주제를 강조함으로써 성화(순종=선행)를 루터보다 중요시 하였다.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의 맥락에서 율법은 자연법, 자연인의 덕목, 실정법, 모든 참되고 진실된 삶의 규범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의 언급에서 나타난 “율법”을 생활에 옮겨야 하며 나아가서 회랍·로마문화의 전통이나 동양문화의 전통이 전해 주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규범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의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성경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자연인의 덕목이나 삶의 습관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우리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이 성경의 주제요 성경의 목표라는 사실을 알았다. 17세기 개신교정통주의와 20세기 초 미

국의 근본주의는 성경말씀의 영감론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의 주제와 목표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성경의 문자주의적 무오성을 주장하므로써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모두 동일한 가치와 비중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경의 경험적인 주제파악을 한 사람의 성경 해석과 단순히 기계적 영감론 혹은 유기적 영감론에 기초한 성경해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성경의 말씀을 내용상 율법과 복음으로 구별하는 사람의 성경해석과 단순히 성경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경해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경험한 율법주의는 인간에게 무거운 짐만 부과하는 것이다. 성경말씀의 율법적 측면들은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와 멸망으로 몰아간다. 율법은 죽음의 망치와 같아서 인간의 모든 성취와 자랑을 때려부수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루터가 강조하는 율법의 몽학선생적 역할로서 인간을 복음(예수 그리스도)으로 인도한다. 물론 성경말씀 중 이같은 율법적인 내용들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주제인 복음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말씀에 흥미를 잃기 쉬운 것이다.

루터는 이상에서 본 대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복음의 경험인 이신칭의(구원)의 통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보았다. 이신칭의와 더불어 이 주제는 모든 신학적 주제들의 동기요 시금석이요 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칼빈은 루터의 이 주제를 자기 것으로 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주제를 발전시켰다.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성취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가를 폭로하였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역사로 은혜와 신앙으로 구원(이신칭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자극적인 요구와 명령이다. 루터나 칼빈 모두에게 있어서 율법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복음을 강조하는 루터에게는 율법의 몽학선생적 기능을 강조했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강조하는 칼빈에게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으로 이해되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과 율법”은 기독교의 본질구조에 속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높은 요구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변함없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다.

끝으로 루터와 칼빈 모두가 말씀의 3중성을 주장하나 칼빈의 경우가 기록된 말씀을 더 강조하고 성령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다. 칼빈이 루터보다 성령을 설교말씀,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강하고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한편 루터는 성경의 주제를 강조한 나머지 경전 안에 경전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성경의 어떤 부분을 제거하는 경향으로 나가며 다른 한편 칼빈은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긴밀하고 강하게 연결시킨 나머지 루터식의 “경전 안에 경전”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 루터의 “경전 안에 경전”은 17세기 칼빈주의와 20세기 근본주의가 지향하는 성경주의(Biblicism)의 오류를 교정하나 후자는 전자의 복음 축소주의에로의 경향을 경고하고 경계한다.